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위해 ‘동행’

정부·현대차·기아·부품업체, 1·2차 협력사까지 잇는 상생형 감축 모델 구축

정부와 현대차·기아가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는 17일 현대차·기아,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 협력업체 87개사(약 200명), 자동차 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쇄형 탄소감축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EU 등 주요국에서 탄소 규제가 기존 사업장 단위를 넘어 제품 단위로 정교화되면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이 새로운 수출 규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현대차·기아는 협력업체들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해 우리 자

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탄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뜻을 모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살비 투자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체계적으로 돕는 한편, 산업부는 올해 IC전자·IC화학·IX하우시스·포스코 등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2026년 신규)을 통해 지원 대상을 공급망 전반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연쇄적 감축’ 구조다. 산업부와 현대차·기아가 먼저 1차 협력사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1차 협력사는 그 지원액을 다시 2

차 협력사로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전체가 순차적으로 탄소 저감 효과를 누리는 상생형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대차·기아는 협력사 지원을 통해 완성차 생산 과정의 탄소발자국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사업 감축 실적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 지속가능경영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자동차 산업은 중소 부품업체 비중이 높아 공급망 수준에서의 감축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며 “선제적으로 감축 체계를 구축한 이번 협약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공급망 탄소 감축은 어느 한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정부와 대·중소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이 2035 NDC를 넘어 산업 전반의 그린전환(GX)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 관계자 역시 “기업·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실질적 공급망 저탄소 전환 모델”이라며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탄소 감축 노력을 자동차 산업을 넘어 전기·전자·철강 석유화학·반도체·조선 등 주요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국내 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사옥에서 공적기금 운용기관 간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금 감사 분야 다자간 협력 강화

국민연금공단, 5개 공적기금 기관과 협약·합동 워크숍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사옥에서 공적기금 운용기관 간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투자공사·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약 1,600조 원 규모(2024년 말 기준)의 공적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는 핵심 기관들로, 이날 협약식에는 각 기관 상임 감사와 실무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2023년 6월 4개 기관과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력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올해 새롭게

합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감사 정보 교류 △감사성과 향상을 위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합동 워크숍 정례화 등 기금운용 감사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협약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협약식 직후에는 KPICA 기금운용 감사 인사이트 합동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기금운용 현안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감사전략, 글로벌 투자환경 트렌드, 협의체 운영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며 기관 간 실질적 협업 가능성을 모색했다.

/오상근 기자



“향산화 물질 품은 기능성 배추 육종 소재 개발”

농진청·아시아종묘, 민관 협업 성과

농촌진흥청과 아시아종묘(주)가 공동 연구를 통해 향산화·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천연 물질 ‘퀴세틴(Quercetin)’을 고농도로 함유한 새로운 기능성 배추 개발에 성공했다.

평범한 채소로 여겨져 온 배추가 고부가가치 기능성 채소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확보되면서 관련 산업의 지형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 개발사업단의 핵심 과제로, 2020년부터 다양한 육종 지원을 보유한 아시아종묘(주)와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협업해 추진해왔다. 연구팀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퀘세틴 생합성이 활발한 자색 배추의 핵심 유전자(BtDFR)를 유전자가위(CRISPR) 기술로 제거했다.

그 결과, 안토시아닌 합성 경로가 차단되면서 대사 흐름이 퀘세틴과 아이소람네티닌(isorhamnetin) 생산으로 전환됐고, 외형은 녹색이지만 일반 배추보다 퀘세틴이 약 30배, 아이소람네티닌이 약 10배 증가한 신품종 배추가 탄생했다.

연구진은 새롭게 개발된 배추 추출물의 향산화 활성을 분석한 결과, 원래의 자색 배추보다 더 높은 향산화 능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며 기능성 향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퀘세틴은 양파 껍질이나 사과 등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의 하나로, 심장 건강 증진, 면역력 강화, 질병 예방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성과는 국제 학술지 Plant Physiology and Biochemistry(IF 6.2) 온라인판에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은 국내 특허 출원(10-2025-0006281)을 마친 뒤 아시아종묘(주)에 기술 이전됐다.

김기준 아시아종묘(주) 생명공학육종연구소장은 “고도화된 유전자가위 기술을 다양한 작물에 적용하면 빠르고 정밀한 품종 육성이 가능해 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AI 시대 대비 위한 청소년 특강 개최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급변하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특강을 마련했다.

전북은행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재단은 17일, 전주지점여자고등학교에서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를 초청해 ‘AI 시대 미래의 유망직종과 준비전략’을 주제로 2025 JB인문학 강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이번 강좌는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미래 세대가 갖춰야 할 역량을 모색하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서용석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5년은 지난 50년의 변화를 뛰어넘는 격변의 시기”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태도와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기술 문해력 △기술 활용 및 응용 능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력 등을 꼽고, 개인별 ‘역량 포트폴리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진흥원, 전북 대표 식품기업과 ‘메가쇼 2025’ 대거 참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도내 농생명 대표기업 8개사와 함께 ‘메가쇼 2025 시즌 2’에 참가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행사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일산 컨텍스에서 열렸다.

바이오진흥원의 전북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전시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식품기업들이 참여해 ‘전북 음식이야기’라는 주제로 공동관을 꾸렸다. 전통장류와 탕류, 떡류, 간편식 등 전복을 대표하는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 시식 행사와 제품 특징을 소개하는 설명 운영이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소비자 및 바이어 간의 접점을 넓힌 점도 주목된다. 그 결과 현장 판매 8천만 원, 국내 납품 및 수출계약 약 15억 원 규모의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박람회 참가가 수도권 진출을 모색하는 전북 식품기업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높였을 뿐 아니라, 향후 유통망 확장에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 식품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오상근 기자

상생페이백 10월분 3373억 지급

전북중기청, 1인 평균 6만원... 9월 포함 7조원 달해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0월 상생페이백 지급 규모가 총 3,37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9~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 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 9월 15일 접수 시작 이후 11월 14일까지 총 1,316만 명이 신청했다.

11월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 증가로 지급 대상이 된 인원은 전체 지원 대상자(1,295만 명)의 43.4%에 해당하는 562만 명으로, 이들에게 지난 15일 총 3,373억 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2만6천 원, 30원 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또한 10월 10일 이후 신청해 지난 10월 15일 1차 지급에서 제외됐던 112만 명에게는 총 643억 원의 9월분 페이백이 소급 지급됐다. 기존 지급분(415만 명, 2,414억 원)을 포함하면 9월 소비 증가에 대해 총 527만 명에게 3,057억 원이 지급된 셈이다.

한편 9~10월 지급 대상자(중복 포함 1,089만 명)는 지난해 월평균보다 총 7조 220억 원을 더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달간의 지급액 6,430억 원의 11배 규모로, 실질적인 소비 확대 효과가 확인됐다.

상생페이백은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온라인몰 등에서의 소비는 제외하고, 중소·소상공인 업종의 카드 사용에만 인정되는 만큼, 중소기업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기부는 11월 10일 이후 신청자도 내달 15일 11월분 지급 때 9·10월 증가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